



'한국관 마타하리' 민간첩 원정화 어떤 활동했나

군부대 안보 강연하며 기밀 빼내

황장영씨 동향·국가 시설 등 보고  
젊은 군장교들에 접근성 로비도

공안당국이 체포돼 27일 기소된 북한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과 간첩 원정화(여·34)씨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여성 스파이였던 마타하리를 연상케 한다.

매혹적인 외모의 여성 스파이였던 마타하리가 프랑스 국방장관과 외교관을 비롯해 고급장교 등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면 원정화도 남성들의 환심을 살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에 1989~1992년 북한에서 특수부대 남파공작 훈련을 받으며 '간첩'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원정화는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제대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1998년 아연을 훔치게 되는데 이것이 보위부와 인연을 맺어 공작원으로 포섭된 것이다.

이후 활동무대를 중국으로 옮겼고 지난 2001년 10월 남한 침투 지령을 받고 조선족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에 성공하게 된다. 국내 잠입을 위해 남한의 최모씨와 결혼까지 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지난 2001년 11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하며 자신에 대한 감시망을 이완시키도록 한 뒤 '위장 탈북자'로서의 간첩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탈북자 신분인 원정화는 수산물 무역 등을 하면서 중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국내 상황을 재중 보위부에 보고하고 보위부로부터 각종 지령을 받는다.

재중 보위부를 방문해 대북정보요원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한편 남한 정보기관과 연계된 남한 사업가를 포섭하

는 지령을 받는가 하면 군부대 위치와 군장교 인적사항 파악부터 대북정보요원이었던 이모씨와 김모씨를 살해하고 군장교 포섭 후 군사기밀을 탐지하며 황장영 씨와 탈북자들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그에게 주어질 임무였다.

그는 이를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모 소령과 교제하며 군사기밀을 빼내려 했고 탈북자단체 간부와 군정보요원 등을 통해 황 씨의 동향과 국가 주요시설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했다.

심지어 지령에 따라 군인과 대북정보요원, 사업가 등을 해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오가며 탈북자 색출 지시를 받았고 2006년 9월~2007년 5월 50차례에 걸쳐 전국 군부대를 돌며 군 안보강연을 실시하며 '북한 핵은 자위용'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찬양하는 CD도 상영했다.

공안 당국은 원정화가 중국을 기반으로 대북 무역을 하고 있는데도 젊은 군장교들과 잇따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언치 없다고 보고 2005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수년에 걸친 은밀한 내사 끝에 원정화가 이메일을 이용해 북한 보위부에 남한의 군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을 포착했고 이를 결정인 증거로 삼아 지난 7월 15일 그녀를 체포했다.

공안 당국은 원정화의 양아버지이자 공작 상부선이었던 김모(63·구속)씨의 남한 내 행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공개된 여간첩 원정화의 간첩 활동 증거물. 증거물에는 공작에 사용했던 남성건강보조식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2008 미국의 선택

민주 전당대회

北 비핵화·인권 명시 정강정책 채택

미국 민주당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채택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지연되는데 맞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26일 채택하려던 정책공약을 하루 앞당겨 이날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 공약의 밑그림이 될 정강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증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안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언급,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강정책은 '미국의 지도력 재건' 항목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같은 미동맹 유지·강화 필요성을 명시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오바마는 자랑스러운 나의 후보"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며 그리고 자랑스러운 오바마 지지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밤 전당대회장인 덴버의 컨벤션센터에서 오바마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바로 자신이 자랑스러운 오바마 지지자임을 선언했다.

힐러리가 오랜지 색깔의 정장 상의와 바지 차림으로 등장하자 직전 그의 성장과정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유세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됐다. 힐러리는 곧이어 "나의 영웅이자 어머니"라는 딸 켈시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힐러리는 이날 "더 실패한 리더십으로 고통받기 위해 지난 18개월 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난 8년을 견뎌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존 매케인은 어쨌든 안된다"며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힐러리는 이어 "버락 오바마는 나의 후보이며 그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힐러리는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와 함께 하게 된 것은 미국인들에게 행운"이라며 "바이든은 강인한 지도자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 지명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힐러리가 "여러분은 나를 많이 깨우쳐 줬고 웃게도 했고 울게도 했다"면서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했고 여러분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이 "사랑해요"하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의 연설을 연단 아래에서 지켜봤고, 힐러리의 연설이 끝나자 미셸 오바마 여사와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바이든 상원의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힐러리는 이날 오후 덴버 시내 셰라톤호텔에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단체인 '에밀리 리스트'가 후원한 모임에서 "어젯밤 미셸 오바마 굉장하지 않았어요"라면서 백악관의 안주인을 꿈꾸는 미셸 여사를 추켜 세우며 유대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美 "北 의무 이행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지연을 이유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머물고 있는 백악관 토니 프래토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면, 북한이 불능화 재개를 테러

지원국 지정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게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에 관한 약속을 안수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총속시키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탈북자 1만명 시대... '악용' 위험 상시 노출

탈북자를 위장한 남파간첩 원정화씨 사건은 '탈북자 1만명 시대'에 돌입했음에도 우리 국민에게는 사실상 무관심의 영역에 남아있던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어려리만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조사결과 원씨는 2001년 10월 조선족

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달 탈북자로 위장 자수한 뒤 한국 국민으로 생활하며 간첩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2002년 1월23일 하나원에 입소, 그 해 3월19일 퇴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절차까지 수료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다 원씨가 탈북자라고 자수한 뒤 신원 조사에서 그의 신분 위장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분단 상황 속에 탈북자라는 존재가 남북 양측에 의해 언제든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거쳐 실제 북한 출신이 맞는지, 위장 탈북은 아닌지 등을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탈북자의 북한 내 세세한 행적까지는 조사할 수 없는 탓에 원씨 처럼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약 1개월간 실시한 다. 탈북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문을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 Law Auction)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It lists various legal services and auc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Hanmun Guide Certificate Training Student Recruitment) for 2008. It lists course detail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Women's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Hanmun Guide Certificate Training Student Recruitment) for 2008. It lists course detail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